

# ‘HA 필러’로 글로벌 시장 재공략 메디톡스 “수익성·점유율 개선”

도미니카공화국·중서 품목허가  
매출 158억, 전년비 28% 줄어  
저가공세·국내외 경쟁 심화 영향  
소송 리스크 등 이익 정상화 과제

메디톡스가 중국, 중남미 등 해외 미용 의료 시장에서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장 기조를 중심으로 필러 사업 역성장 방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모습이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지난달 도미니카공화국 의약품식품건강제품총국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HA 필러 ‘아티에르’ 3종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신규 허가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고급 HA 필러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국을 아시아 지역 핵심 거점으로, 향후 중국 최대 제약기업 시노팜과 협업해 현지 마케팅과 유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이처럼 거대 마용의료 시장을 정조준해 필러 브랜드 입지를 다져, 필러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외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동안 메디톡스 필러 사업은 실적



히알루론산 필러 ‘아티에르’ 3종.

둔화세를 겪어왔다. 올해 1분기 메디톡스 필러 사업 매출은 158억원으로 전년 동기 219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191억원과 비교해도 17% 줄었다. 메디톡스는 전략적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해외 매출의 일시적 하락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러 수출 타격이 더 컸다. 올해 1분기 필러 수출액은 115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175억원 대비 34%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수 매출 역시 4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내려가 안팎으로 필러 사업의 입지가 좁아졌다.

메디톡스 측은 “후발 주자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국내외 경쟁이 심화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필러 사업이 주축하는 사이 메디톡스의 실적 저울추는 보툴리눔 독신 사업으로 기울었다. 올해 1분기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신 매출은 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33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독신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메디톡스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158억원에서 올해 1분기 214억 원으로 35% 커지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607억원에서 보툴리눔 독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 수준이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과제에도 당면해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소송 리스크 완화 등으로 영업이익 74억원과 당기순이익 79억원은 전년 대비 각각 35%, 136% 증가했다. 범주별을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률이 38%에 달하는 데 비해 최종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묶여 있다.

메디톡스 측은 “소송 리스크가 고정부로 작용해 발목을 잡았으나 소송 리스크 해소 시 즉각적인 이익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글로벌 사업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에 주력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이문셀엘씨주’ 평가기준 마련 국제표준 분류에 공식 등재

지씨셀, WHO 의약품 분류체계서  
‘항종양 세포·유전자치료’ 부문 등재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지씨셀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문셀엘씨주의 표준화된 약물가치가 확보됐다.

지씨셀은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분류 체계에서 ‘항종양 세포 및 유전자치료(L01XL)’ 부문에 이문셀엘씨주가 공식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최종 등재 시점은 오는 2027년 1월이다.

기존에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문셀엘씨주는 ‘기타 면역자극제(L03AX)’로 분류돼 왔다. 이후 세계보건기구가 ‘항종양 세포 및 유전자치료(L01XL)’를 신설·정비하면서 심사를 거쳐 해당 분류로 편입이 확정됐다.

이번 등재를 통해 이문셀엘씨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의 국제 표준 분류 기준에 포함되며 해외 기술수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제품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문셀엘씨주’ /지씨셀

아울러 지씨셀은 이문셀엘씨주 해외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5월 인도네시아에서 이문셀엘씨주 첫 환자투여를 완료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다수 국가와 추가 기술수출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씨셀 관계자는 “이번 세계보건기구 의약품분류체계 등재는 이문셀엘씨주의 임상시험 및 실처방 데이터(RWD) 등이 글로벌 표준 분류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분류 체계가 항암제로 명확해진 만큼 2027년 최종 적용 시점에 맞춰 해외 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광동제약,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

제조공장 고효율·저탄소 설비 전환  
에너지 비용 연간 2억 절감 기대

광동제약이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관련 설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을 다진다. 광동제약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정부 국책 사업으로, 제조공장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저탄소 설비 전환을 지원한다.

광동제약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생산 시설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투자 내용은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 ▲폐열 재

활용 시스템 ▲전력 절감형 공조기 ▲고효율 송풍 설비 ▲고효율 폐기물 탈수 설비 등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감독 체제를 운영하며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광동제약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톤, 폐기물 발생량 약 16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도 연간 약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확대하고 제조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비 투자와 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온실가스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SK바사, ‘백신 생산’ 글로벌 점검 완료

WHO 정기 점검 통과... 역량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정기 점검을 통과하며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입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전적격성평가(PQ)를 인증한 자사 독감백신 스키아셀플루 및 스키아셀플루 4가, 수두백신 스키아바리셀라, 장티푸스 백신 스키아티아포이드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는 WHO GMP 정기 점검을 완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실사 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되면서 해당 백신을 제조하는 공장 ‘인동 엘 하우스’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 일반적으로 WHO GMP 점검은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그러나 엘 하우스(L HOUSE)는 제출 자료 검토만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서면심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GMP 운영 전략뿐 아니라 국내 의약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뒷받침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

구 우수규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식약처 자료가 활용되면서 일부 절차에서 현장실사가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장실사 대비 준비 기간과 투입 인원을 효율화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MP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주요 규제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상윤 공장장은 “이번 WHO GMP 서면심사 완료는 인동 L HOUSE의 GMP 운영 역량과 품질 시스템이 거둔 국제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hy “HY7715, 스트레스에 따른 뇌신경 노화 완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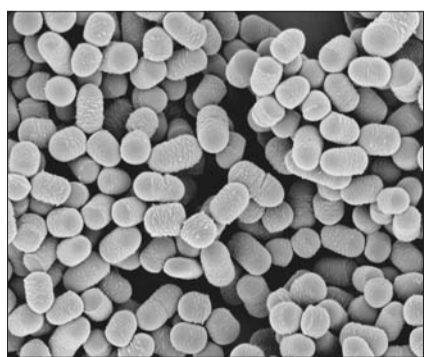
SCI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hy가 자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HY7715’의 뇌신경 노화 억제 효능을 확인했다.

hy는 ‘HY7715의 스트레스에 따른 뇌신경 노화 지표 변화’를 다룬 연구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HY7715가 뇌신경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hy는 세포·동물 실험을 통해 HY7715가 스트레스에 따른 뇌신경 노화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세포 실험에서는 HY7715 처리군의 산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25,000배 확대 관찰한 HY7715. /hy

화스트레스와 세포노화가 완화됐다. 산화스트레스로 증가한 활성산소와 DNA 손상, 세포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했고 세포 보호와 관련된 지표는 회복됐다. 동물 실험에서도 구수 스트레스를 받

은 실험 동물에게 HY7715를 투여했을 때 세포노화와 염증 관련 지표는 줄고 항산화 지표는 개선됐다.

스트레스받은 동물 모델군과 정상군이 각각 다른 장내미생물을 갖는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도 포착했다. HY7715투여군에서는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증가했고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 늘어난 일부 미생물군이 감소하기도 했다. 장내미생물 변화와 뇌 조직의 항산화, 염증, 세포노화 지표 간 상관관계도 확인했다.

HY7715는 hy가 자체 개발한 식물 유래 프로바이오틱스다. hy는 해당 균주의 비타민 B2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근감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능성 검증을 이어왔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 라엘 ‘에어리 쿨’, 전월비 300% 성장세

여름철 고기능성 생리대 시장 공략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이 여름철 생리대 시장에서 고기능성 제품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라엘은 올해 5월 국내 판매량에서 자사 ‘에어리 쿨’ 제품군이 전월 대비 30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에어리 쿨은 높은 기온과 습도에 대응 가능한 통기성과 쾌적한 사용감을 갖춘 신제품이다. 지난 4월 말 출시 직후에는 CJ올리브영에서 전체 상품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라엘에 따르면, 팬티형 제품인 ‘에어리 쿨 입는 오버나이트’ (사진)의 일부 사이즈는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품절되는 등 제품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엘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적 수요에 맞춰 추가 공급을 준비한다는 방



침이다. 현재 품절된 제품은 오는 7월 중순 이후 주요 판매처를 시작으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라엘 관계자는 “웰니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 생리대 역시 단순히 시원한 느낌보다 쾌적한 착용감과 피부 친화성을 함께 살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에어리 쿨 생리대는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해지기 쉬운 여름철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기성과 착용감, 피부부담까지 고려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